VIP 고객용

08-18(통권 27호)
2008.11.4.

금융빅뱅 인사이트

- 자본 시장 분석
  - 다시 뛰는 맥박
- 금융 빅뱅 이슈
  - 원화 유동성 부족 가능성과 대책

현대증권 現代經濟硏究院

□ 본 자료는 주요 투자자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 금융 빅뱅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증권사와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대 증 권 : 한 동 욱 연 구 위 원 (2014-1708, tuksan.han@hdsrc.com)
□ 현대경제연구원 : 현 석 원 연 구 위 원 (3669-4024, kyotohyun@hri.co.k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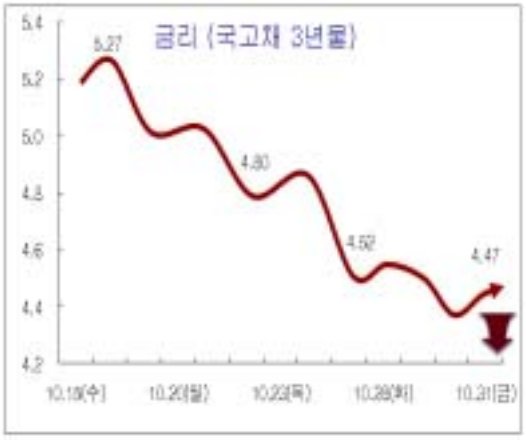
VIP 고객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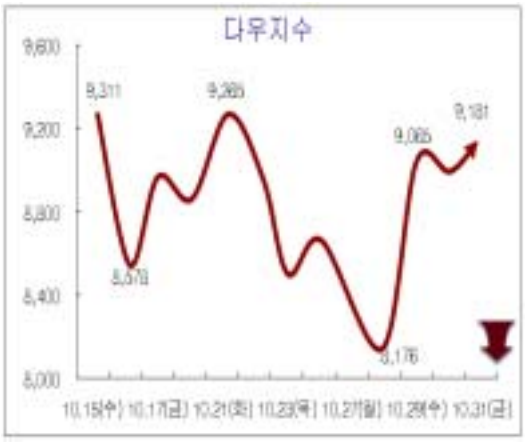
금융빅뱅 인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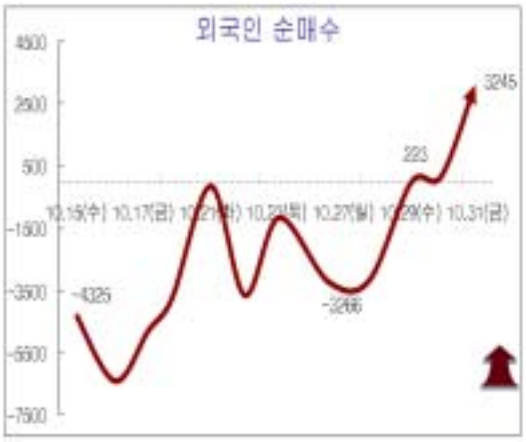
▌자본 시장 분석
- 다시 뛰는 맥박

▌금융 빅뱅 이슈
- 원화 유동성 부족 가능성과 대책

月間 主要 經濟 指標 (10.15 ~ 10.31)







목차

자본 시장 분석

□ 다시 뛰는 맥박 1

금융 빅뱅 이슈

□ 원화 유동성 부족 가능성과 대책 10

Executive Summary

□ 다시 뛰는 맥박

1. 2009년 KOSPI 전망 - 1,450p(1,100~1,450p)

연간 20% 상승률을 전망한다. 그 이유는, 1)2분기 말에 글로벌 경제 둔화세가 최악을 지나 회복세가 예상된다는 점과, 2)1950년 이래 역사적 경기침체 8차례의 주가 바닥과 분기별 상승률을 현 금융위기와 글로벌경제 상황을 감안해 91년 이래 한국증시 평균 PBR 1.1배를 2009년 말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2. 글로벌경제 및 한국경제 2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 전망

미국 금융위기의 글로벌 전염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07년까지 글로벌 경제 고성장국면의 원동력이었던 중국 및 이머징마켓 교역증가세 역시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09년 2분기까지 경기 둔화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3. 역사적 침체기 주가동향과 한국증시 17년 평균 PBR 1.1배 적용

1950년 이래 미국 경제 침체기 8차례 사례에서 **주가는 경기 저점보다 5개월 선행하고 저점 이후 12개월동안 약 31%의 주가 상승률** 기록했다. 이에 더하여 이번 금융위기 해소과정의 장기화 가능성과 경기부양 정책에 있어 글로벌 전반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반영해 **적정 밸류에이션을 과거 17년간 평균 PBR인 1.1배를 적용**한다.

4. 금융위기 해소과정 전망

이상과 같은 비교적 긍정적 전망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서, **순탄한 미국 및 유럽의 금융위기 해소과정과 범 글로벌 차원의 거시경제정책 진행 여부**이다. 이 두 가지의 성공여부는, 1)신속성, 2)올바른 진단에 따른 적합한 정책 대응, 3)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 이상의 3가지이다.

5. 투자전략 - 09년 투자의견 ‘중립(Neutral)’으로 시작

20%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립(Neutral)’ 의견 이유는, 1)**높은 변동성**으로 기대수익률 할인이 불가피하고, 2)글로벌 전반의 경기둔화 및 침체이기 때문에 질서정연한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나 지역 및 국가별로 처한 상이한 상황 때문에 **이기적 대응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ecutive Summary

□ 원화 유동성 부족 가능성과 대책

1. 외환위기 당시 유동성 위기 추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는 외화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율이 상승하고 국내 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이 발생하면서 금리가 급등하게 되었다. 우선 1997년에 들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연장 거부로 환율은 1996년말 805.1원에서 1997년 12월 1,962원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국내 은행들은 채무상환 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보다 엄격한 대출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대출 공급이 부족해졌다. 이에 따라 CD 금리는 1996년 평균 12.63%에서 1997년 12월 23일 최대 25%까지 급등하였다. 은행의 신용 경색은 기업의 연쇄 부도를 가져오고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이 급증하는 악순환 현상에 빠지게 되었다.

2. 원화 유동성 부족 가능성 분석

최근 시중 유동성 부족 현상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CD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점에서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다. 최근 환율은 2007년 936.1원에서 2008년 10월 15일 현재 1,269.5원까지 상승하였으며 CD 금리는 2007년 평균 5.14%에서 2008년 10월 15일 6.06%까지 상승하였다. 다만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국내 일반은행과 기업의 자산 건전성은 양호하다. 2008년 6월말 현재 국내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대비 무수익 여신 비율은 7.4%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말의 111.8%에 비하면 매우 안정된 상태이다. 기업의 부채비율은 1997년 396.3%에서 2008년 6월말 96.4%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시중 유동성 부족은 은행과 기업의 건전성이 양호하므로 외환위기 때에 비해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 국내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글로벌 금융시장 악화가 지속될 경우, 원화 유동성 악화로 진행될 수 있다.

첫째,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의 자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CD 금리가 6.06%까지 급등한 상황에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2008년 8월 7.5%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경우, 중소 건설사 부실 가능성이 높아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 연체여신은 2008년 6월말 14.0%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제조업의 업황실적과 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대기업의 업황은 2008년 6월 87에서 9월 현재 75까지 하락했으며 중소제조업의 경우, 2008년 6월 이후 7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다. 자금조달 사정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2008년 5월 96에서 2008년 9월 81까지 하락했으며 중소제조업은 2007년 11월 86에서 하락하여 2008년 9월 75까지 떨어졌다. 또한 향후 중소기업들의 대출 수요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8년 4/4분기의 대출수요지수는 3/4분기의 22보다 12나 높은 34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셋째,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함에 따라 은행이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2008년 3/4분기부터 가계,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신용위험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8년 3/4분기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지수는 47로 지난 2007년 4/4분기에 비해 22나 높아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급감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는 2008년 3/4분기에 전분기 대비 10조 원이나 감소한 9.2조 원에 그쳤다. **넷째,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예금은행의 고원가성 예금의 증가로 인해 예대금리차는 축소되고 순이자마진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담보대출액이 2001년 12월말 75원에서 2008년 6월말 307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대출비율도 50% 근처에 달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다면 은행의 부실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은행의 수신 구조가 취약함으로써 은행의 대출 여력이 약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심화로 자금이 안전자산인 국고채로 집중되는 반면, 은행채 수요는 감소함으로써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며 은행의 발행 부담이 증가하였다. 은행 수신은 2008년에 개선되었으나 수시입출금과 같은 저원가성 수신 증가는 작년 대비 1조 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단기 상품인 CD 금리와 MMF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며 대기성 부동 자금도 확대되고 있다. 2007년말 전년대비 10.4조 원이 하락한 MMF는 2008년 9월 현재 15.6조 원이 증가한 상황이다.

3. 향후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 부족이 원화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금융기관의 기업과 가계에 대한 신용 공급 노력을 극대화하여 금융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량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해서는 운용자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출 연장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위한 다양한 자금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CD나 은행채 등의 발행 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다양한 예금 신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은행들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금융정책을 유연하게 수립해야 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은행의 지준율과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은행들의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한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해 정책 지원금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금융상품 개발에 있어 세제상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기업들은 국내 자금시장의 유동성 악화에 대비하여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될 경우, 은행들이 대출 관리를 강화할 것이므로 투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이에 맞도록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시 뛰는 맥박

○ 2분기 경제둔화 진정, 역사적 사례 기반으로 17년간 평균 PBR 1.1배 적용

- 2009년 말 적정 KOSPI는 1,450p(1,100~1,450p)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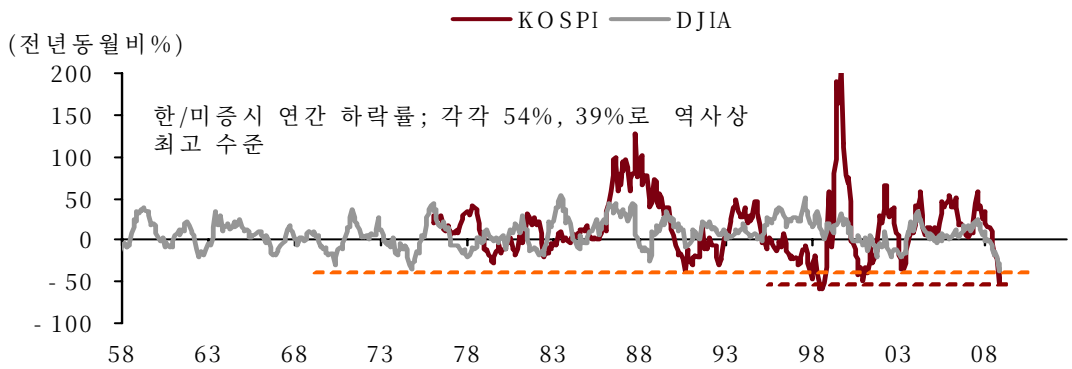
- 08년 4분기 예상 KOSPI 수준을 1,200p라고 가정할 때, 약 20%의 상승여력이 있음
  ・그 배경은 첫째, 한국 및 글로벌경제 둔화세가 2분기 말을 기점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당사 이코노미스트의 전망과 둘째, 이를 기반으로 역사적 경기침체 8차례 주가 움직임과 최근 금융위기와 중국경제 프리미엄을 고려하고 셋째, PBR 과거 17년간 평균 수준인 1.1배를 적용, 이상 3가지임

○ 현황1: 역사적 유례가 드문 증시 폭락세

- 먼저, 최근 증시 현황을 하락 폭, 밸류에이션, 변동성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역사적으로 기록할 만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음

- 10월 24일 기준 한국 증시 연간 하락률은 51%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시기였던 98년 6월 60%하락 이후 처음이고, 미국은 1958년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인 39%를 기록하였음
  ・주가하락률로만 보면, 국가채무불이행 직전수준까지 다다랐다는 의미임

연간 주가 등락률 추이: 유례가 드문 증시 하락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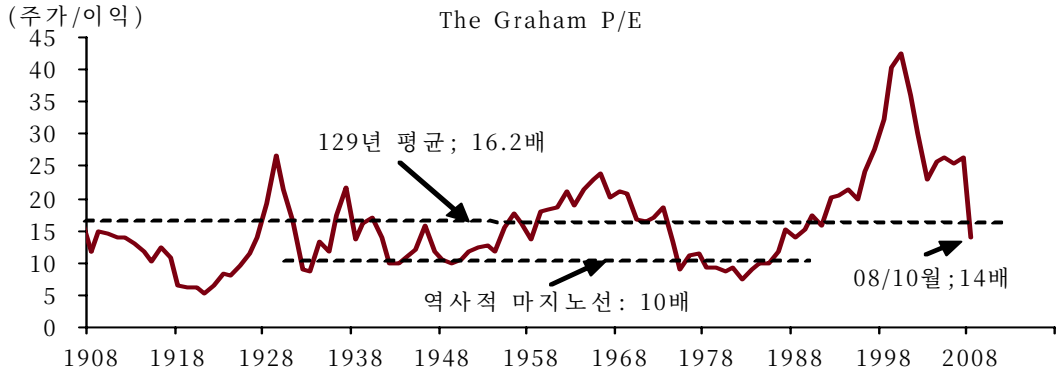
참고 : 2008년은 10월 24일까지 전년동월대비 주가등락률을 표시한 것.
자료 : Thomson Datastream.

○ 현황2: ‘ Graham P/E ’ 기준으로 129년 평균 이하로 하락

- 주가 폭락세와 이익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은 투자의사 결정에 유용한 지표가 되지 못함
  ·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밸류에이션 기준 중 하나인 Graham PER 기준으로 현재 시장을 짚어봄

- 경기변동요인을 제거하고 물가 감안한 실질이익기준으로 미국 증시(S&P 500)는 10월 24일 현재 14배수준임
  · 이는 129년 역사적 평균 16.2배를 18년만에 하회한 것이고, 50년대 2차 세계대전과 70년대 오일쇼크 당시 기록했던 최저 밸류에이션 10배까지는 20~30%의 추가 하락여지가 있음

경기변동과 물가 감안 실질 이익기준의 증시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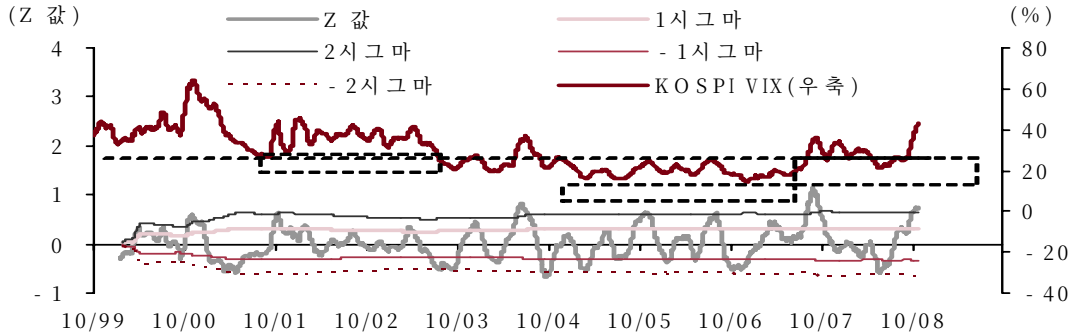
참고 : 1) ' The Graham PER' 이란 주가와 이익을 현재 물가로 환산하고, 이익은 10년 평균을 사용. 즉, 물가와 경기변동을 제거한 밸류에이션 방법, 2)주가와 이익은S&P 500, 연간 EPS와, 08년 S&P500 EPS는 시장 컨센서스 사용, 물가는 CPI 사용.
자료 : Robert J Shiller, Thomson Datastream, 현대증권.

○ 현황3: 09년 한국증시 변동성, 07년 9월 이전대비 2배 이상 예상

- 증시 위험 지표로서 변동성 역시 Y2K버블 붕괴 후 본격적인 경기침체국면이 진행되던 수준으로 높아졌음
  · 한국 증시의 변동성에 미국 S&P VIX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때, 현재 수위는 07년 상반기까지 3년 동안 수준의 2배가 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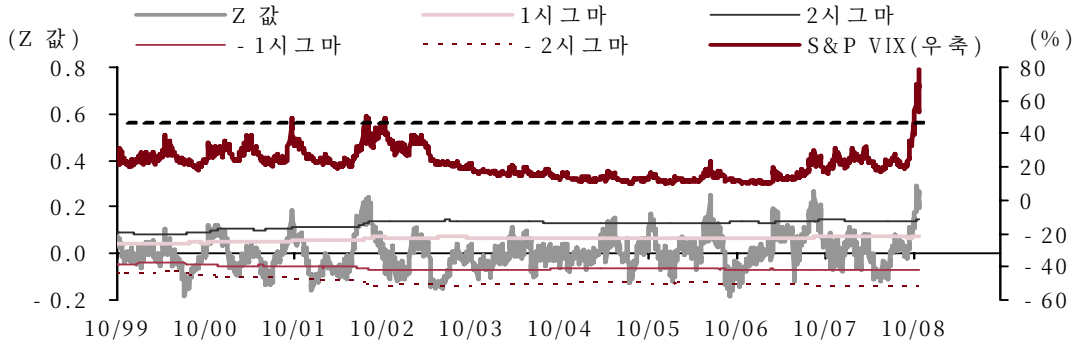
- 따라서, 09년 한국 증시 변동성은 현재 상황 즉, 실물경제 침체와 금융위기 해소과정 아래에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높은 기대수익률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안할 때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가져갈 수 없는 원인이 됨

KOSPI의 변동성: 08년 4분기~09년 1분기 중 변동성 완화 예상이 합리적



자료 : Thomson Datastream, 현대증권.

미국 S&P 500 변동성: 역사상 최고수준



자료 : Thomson Datastream, 현대증권.

○ 근거 1: 실물경제, 2분기 말을 기점으로 급격한 둔화세 진정 전망

- **(미국과 중국경제)** 당사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에 기인한 인플레압력이 3분기 중 정점을 지나 완화될 것으로 전망함
  - 그 이유는 미국 및 유럽 통화당국의 인플레 대처 동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현 수준의 유가가 유지되더라도 인플레압력에 의한 실물경제 둔화가 심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함

- **(한국경제)** 한국경제에 대한 ‘ 비중확대(Overweight) ’ 를 유지하는 한편, 6개월기준 적정 KOSPI는 2,020p(1,820~2,230p)에서 1,960p(1,650~2,160p)로 하향
  ・그 이유는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증시 할인율 증가를 반영해 18개월 기준 적정 PER를 11.0배(종전 11.4배)를 적용하기 때문임

○ 근거2: 과거 60년간 8차례 경기침체 사례

- 1950년 이후 미국 국가경제조사국(NBER)에서 구분한 경기침체 기간 8차례와 주가 동향을 살펴본 결과, 주가의 평균 하락기간은 16개월, 경기보다 주가 저점은 5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주가 저점이후 4분기동안 31%의 상승률을 보였고, 분기별로는 첫 분기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음

○ 3개월~6개월 경과 후 주가 저점 형성 기대 → 이후 1년간 31% 상승 가능

- 이를 이번 경기침체기에 적용할 때, 13개월째 주가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부터 약 3개월 뒤인 09년 1분기 중반에 저점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글로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과거 사례 중 최장기 침체기간을 적용하면, 3분기 중반까지 조정국면을 배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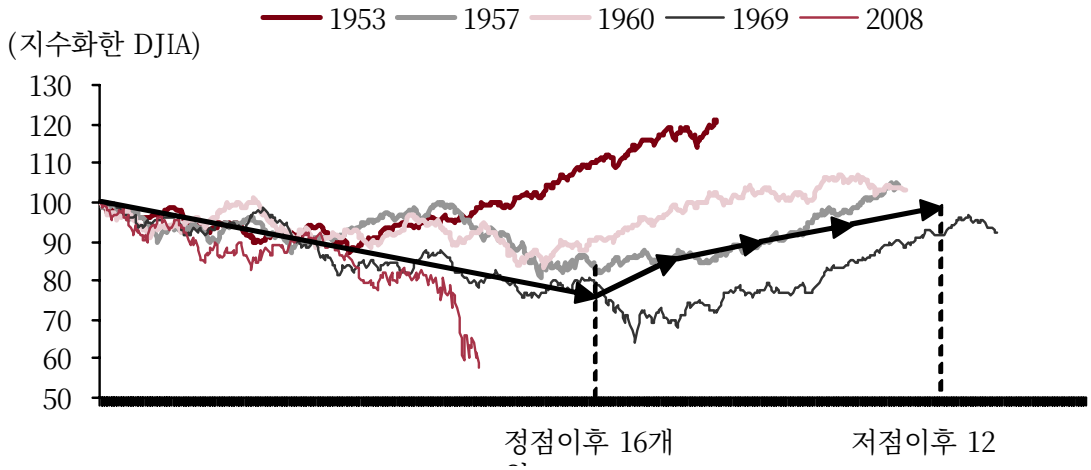
지난 60년간 8차례 경기침체기 주가 동향: 미국 DJIA

(단위:개월, %)

	경기침체 기간			주가하락 기간					저점이후 주가 상승률			
	시작	끝	지속기간	최고점	최저점	지속기간	하락률	주가선행기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	Jul-53	May-54	10	53-01-05	53-09-21	9	-12.2	8	9.7	16.9	27.3	38.1
2	Aug-57	Apr-58	12	56-08-02	57-10-21	15	-18.8	6	5.6	6.5	16.6	28.5
3	Apr-60	Feb-61	10	59-08-03	60-10-25	15	-16.5	4	12.7	20.7	21.3	23.8
4	Dec-69	Nov-70	11	68-11-29	70-05-26	18	-35.9	6	20.5	22.7	39.2	43.6
5	Nov-73	Mar-75	16	73-01-11	74-10-04	22	-44.4	5	9	27.8	49.1	40.2
6	Jul-81	Nov-82	16	80-11-28	82-08-12	21	-21.8	3	33.9	5.5	15.7	52.2
7	Jul-90	Mar-91	8	90-06-12	90-10-11	5	-19.4	5	5.8	22.8	25.1	26.2
8	Mar-01	Nov-01	8	00-03-27	01-09-21	21	-25.3	2	21.9	27.2	12.4	-4.4
평균			**11.4**			**15.8**	**-24.3**	**4.9**	**14.9**	**18.8**	**25.8**	**31.0**
9	*Jan-08*	*Apr-09*	*15*	*07-10-09*	*08-11-15*	*13*	*-42.3*	*5*				
9	*Jan-08*	*Jul-09*	*18*	*07-10-09*	*09-02-15*	*1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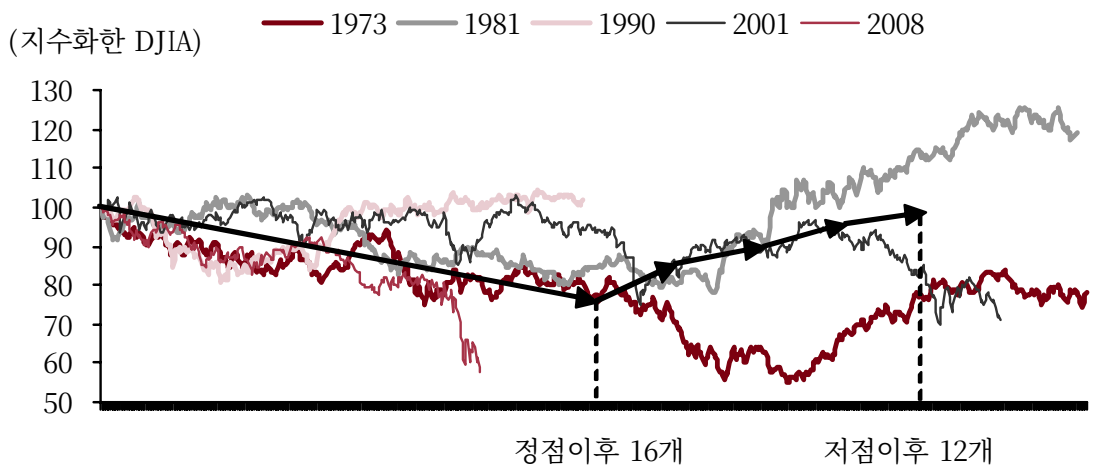
자료 : NBER, Thomson Datastream, 현대증권.

70년 이전 4차례 경기침체기 주가동향 비교



자료 : Thomson Datastream, 현대증권.

70년 이후 4차례 경기침체기 주가동향 비교



자료 : Thomson Datastream, 현대증권.

○ 09년말 KOSPI는 1,450p로 전망

- 미국 경제침체기 사례를 바탕으로 본 2009년말 KOSPI는 현 수준(2008년 4분기 1,130p 가정)에서 약 21% 상승여력을 보유해 1,450p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함
  - 이는 아래 역사적 평균 상승률과 현 금융위기상황 그리고 이머징마켓으로서 한국시장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고려한 것임

분기별 KOSPI 추정 3단계

1단계	과거 60년간 미국 경기침체 8차례 주가저점후 분기별 상승률
2단계	미국 증시상승률을 분기별로 110%, 90%, 95%, 95% 적용. 이유는, 이번 금융위기 해소 및 정리과정의 장기화 가능성
3단계	한국 증시상승률은 미국대비 분기별로 110%, 90%, 95%, 95%적용 이유는, 경기회복 초기 이머징마켓의 높은 변동성을 반영

자료 : 현대증권.

분기별 주가 누적 상승률 및 적정 KOSPI 추정

(단위: %, 달러, p)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09년 평균
미국 역사적 평균 1)	14.9	18.8	25.8	31.0	
09년 미국 수정 적용 2)	16.4	16.9	24.5	29.5	
09년 DJIA	10,853	10,903	11,611	12,071	10,953
09년 한국 수정 적용 3)	18.0	15.2	23.3	28.0	
09년 KOSPI	**1,334**	**1,302**	**1,393**	**1,446**	**1,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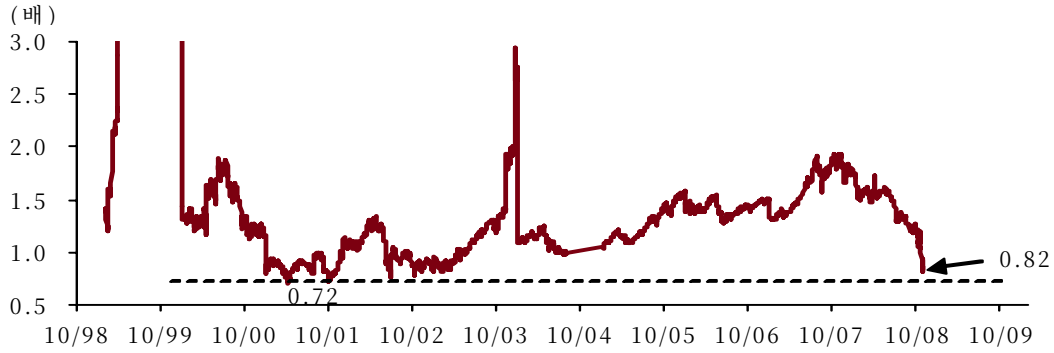
자료 : 현대증권.

○ 한국증시 PBR 지난 2001년 경기침체기 수준에 근접

- 한편, PBR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지난 10월 24일 0.8배에 기록해 2000년 Y2K 버블 붕괴이후 최저수준인 0.7배에 육박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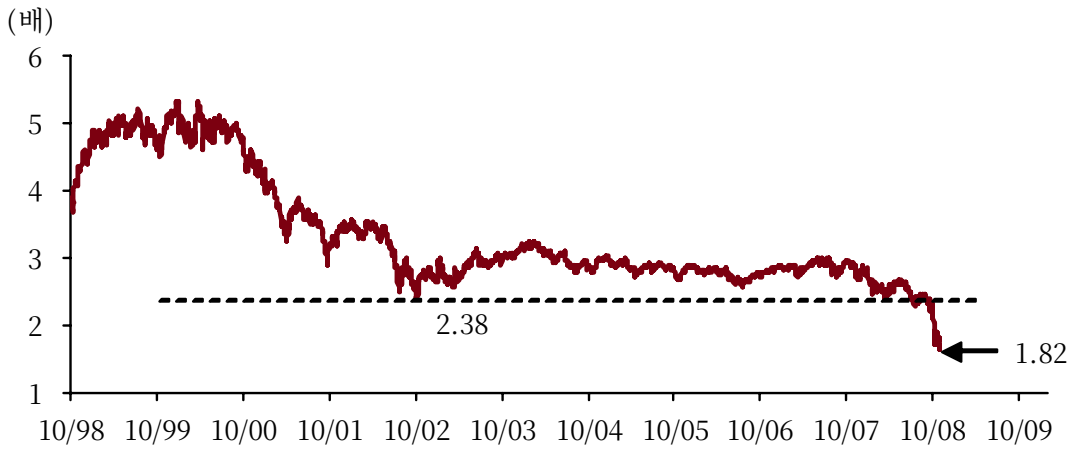
- 또한 미국증시(S&P500)의 PBR은 가장 최근 경기침체시기(2001~2002년)의 최저 밸류에이션 2.4배를 하회한 1.8배를 기록하였음

한국증시(KOSPI) PBR 추이



자료 : Bloomberg.

미국증시(S&P 500) PB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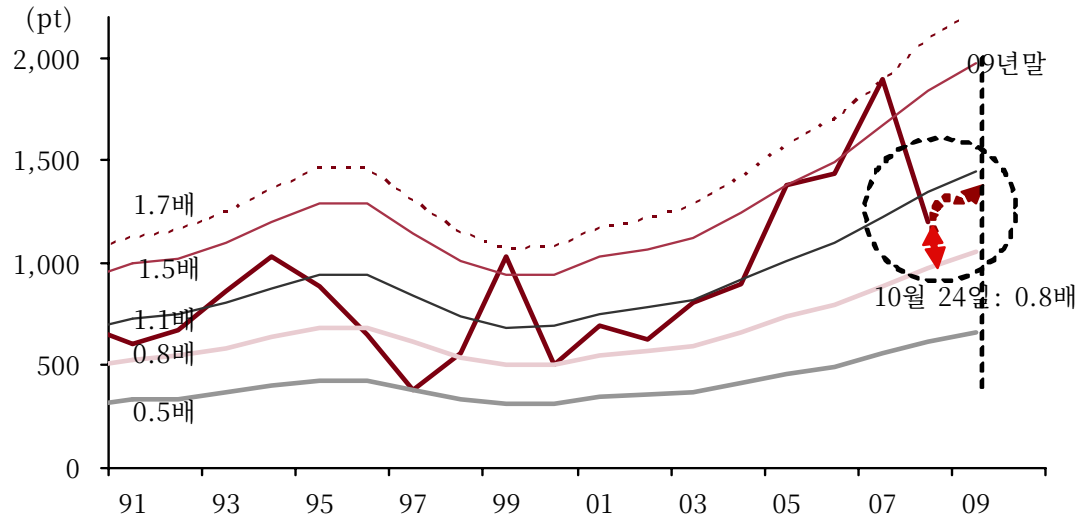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 09년말 적정 PBR 1.1배, 과거 17년간 평균 수준 적용

- 이와 같이 극단수준으로 낮아진 PBR수준에서 09년 말 적정 PBR은 1.1배로 BPS는 7%증가를 예상해 적정 KOSPI 1,448p를 예상함
  - 적정 PBR 1.1배를 적용하는 이유는, 당사 경제전망에 따라 2009년 하반기는 경기둔화가 진저오디고 회복되고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고, BPS(주당 장부가치)는 08년 103% 증가에 30% 미치지 못하는 7% 증가를 예상하기 때문

역사적 PBR로 본 2009년 말 적정 PBR 1.1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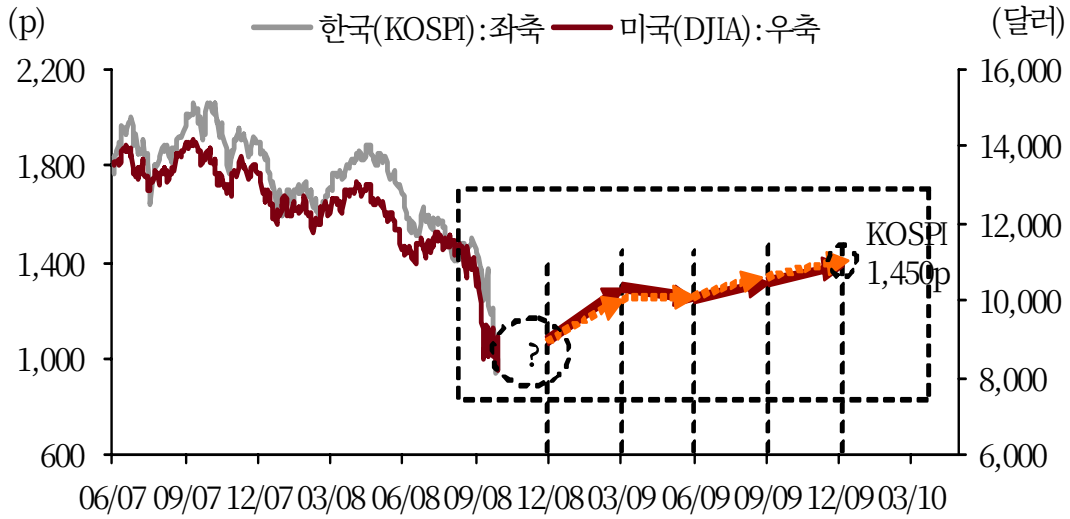


자료 : Thomson Datastream, 현대증권.

○ 2009년 분기별 KOSPI 흐름

- 이상과 같이 역사적 사례와 적정 PBR수위를 바탕으로 2009년말 KOSPI는 PBR1.1배를 적용해 현재대비(4분기 평균 1,130p가정) 20%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전망함
  - 분기별 누적수익률은 각각 11%, 9%, 16%, 21%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2009년 한, 미 증시흐름 예상



자료 : Thomson Datastream, 현대증권.

○ 2009년 KOSPI 전망의 3가지 한계점

-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 2009년 KOSPI 전망치는 한계점을 가짐

- 첫째,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증시 저점 지연 가능성
  - 8차례 역사적 사례 중 최악의 경우를 적용할 경우 2009년 3분기까지 조정국면이 연장될 수 있음
  - 이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이번 금융위기의 손실규모가 글로벌 전반을 감안할 경우 역사상 최악을 넘어설 위험이 아직 잔존해 있기 때문

- 둘째, 추정한 저점 수위가 더 낮아질 가능성
  - 그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머징 마켓으로 전염되며 이제 막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 둔화세가 가속화될 위험이 적지 않음

- 셋째, 금융위기 해소과정이 순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 금융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나 글로벌화되어 있는 금융시스템으로 인하여 글로벌 전반으로 위기가 전염되었고, 이 때문에 봉쇄를 위한 초국가적 글로벌 공조가 마련되었음
  - 그러나 향후 금융위기 해소과정에 있어서는 지역 및 국가간 상이한 처지와 이념을 고려할 때 적합한 정책대안이 신속하게 등장하며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여전히 위험요소로 남아있을 것임

한동욱 연구위원 (2014-1708, tuksan.han@hdsrc.com)

원화 유동성 부족 가능성과 대책

1. 외환위기 당시 유동성 위기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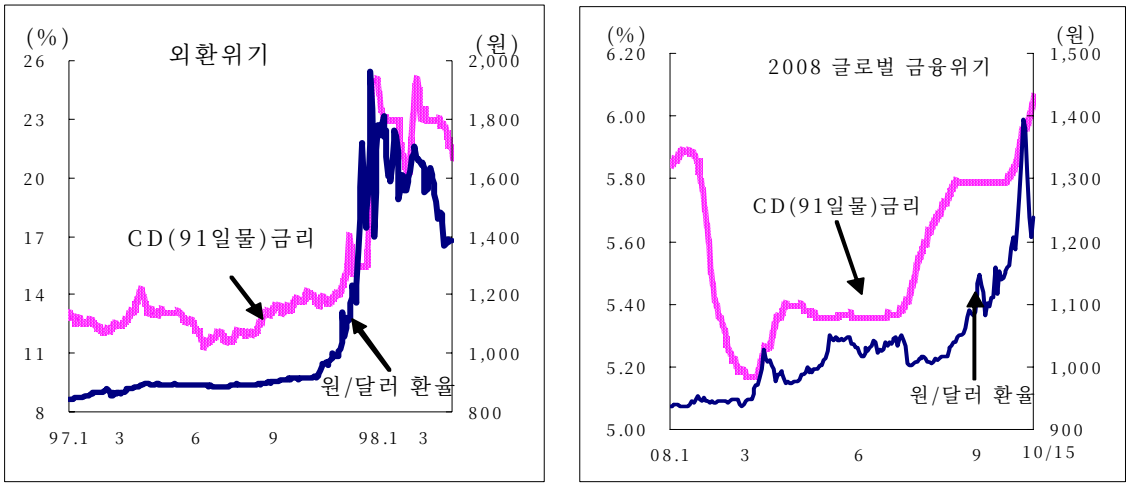
○ 1997년 외환위기 당시는 외화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율이 상승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각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이 발생하면서 금리가 급등

- **외화 유동성 부족:** 1997년에 들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1997년 10월 하순부터 외국인투자가들의 투자 유출이 본격화되고 해외금융기관이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연장 거부로 외환수요가 급증하고 환율 상승

- **금융기관 부실 심각:**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상당수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미 채무상환 불능 상태에 있었음
  - 1997년말 현재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대비 부실여신 비율이 이미 111.8%, 자기자본대비 부실여신 비율도 59.1%를 기록하고 있었음

- **기업 신용경색 심화:** 금융기관 부실이 표면화된 상황에서 기업의 연쇄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기관은 보다 엄격한 대출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대출공급이 부족하여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CD 금리는 급등
  - 이에 따라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의 추가적인 연쇄부도가 발생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이 급증하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자료 : 한국은행, Ecos.

2. 원화 유동성 부족 가능성 분석

○ 2008년 3/4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CD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현상은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지만 일반은행과 기업의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고 있음

- **환율 상승과 CD 금리 급등:** 2008년 환율이 상승하였을 뿐 아니라 시중 자금 경색이 되면서 CD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임
  - 환율은 1996년말 805.1원에서 1997년 12월 1,962원까지 상승하였으며 2008년에도 2007년 936.1원에서 2008년 현재 1,269.5원까지 상승
  - 외환위기 당시 CD 금리는 1996년 평균 12.63%에서 1997년 12월 23일 최대 25%까지 급등하였으며 2007년 평균 5.14%에서 2008년 10월 15일 6.06%까지 상승

- **일반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양호:**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여 국내 일반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상태임
  - 2008년 6월말 현재 국내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대비 무수익 여신 비율은 7.4%로 매우 안정된 상태임
  - 하지만 외환위기 시기와 비교하여 예금은행 원화대출금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7년 29.2%에서 2007년 45.2%로 급등

- **기업의 재무구조 양호:** 1997년 외환위기 당시는 부채비율이 396.3%에 달하고 있으나 2008년 2/4분기 현재 96.4%로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임

일반은행 부실여신 및 무수익 여신[1)]

(단위 : 억원)

	부실여신(A)[1)]	무수익여신(B)[2)]	자기자본(C)	A/C	B/C
1996년말	24,439	118,739	201,060	12.2%	59.1%
1997년말	100,900	225,621	202,623	49.8%	111.8%
2007년말	25,446	46,694	655,856	3.9%	7.1%
2008년6월말	26,264	50,304	675,697	3.9%	7.4%

자료 : 금감원, 『금융통계월보』, 각호 참조.
주 : 1) 부실여신은 고정이하 여신 가운데 고정을 제외한 회수의문(doubtful)과 추정손실(estimated loss)의 합임.
2) 무수익여신은 부실여신과 고정여신의 합임.

1) 1996년과 1997년 자료는 이충렬, 『한국 통화위기의 성격과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03.5.를 참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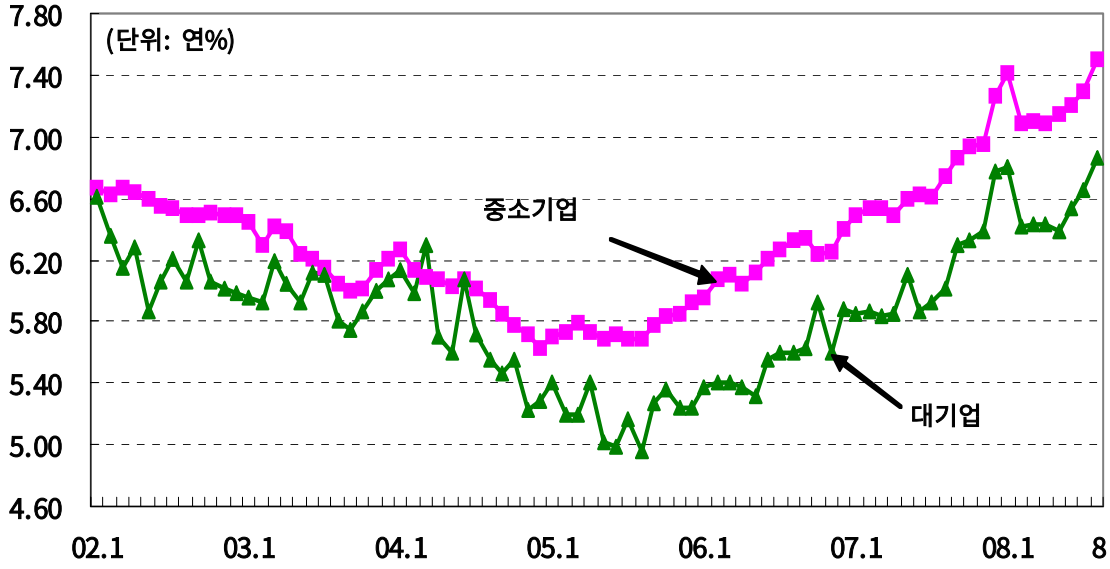
○ 그러나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 은행의 수익성 악화 및 수신 구조 취약 등으로 은행 대출이 축소되고 대출금리 상승과 업황 악화 등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대되어 유동성 부족이 심화될 수 있음

①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의 자금 상환 부담 가중

-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업의 자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높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

- **대출금리 상승**: 국내은행들은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증대하고 있음
  - 국내물가 상승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과 신용위험이 반영되면서 예금은행의 가계,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상승 추세에 있음
  - 특히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08년 1월 7.4%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 6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8월에는 7.5%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월평균 대출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 **상호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악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PF관련 부실에 따른 영향으로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부동산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경우 상호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국내 자금시장 경색 가능성 상존
  -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 중소 건설사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건정성 악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저축은행의 연체여신은 2006년 6월말에 비해 다소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2008년 6월말 14.0%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 부실 위험성이 높음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현황

(단위 : 억원, % ,%p)

	'06.6.말	'07.6.말(A)	'08.6.말(B)	증 감(B-A)	
					증감률
연 체 여 신	57,796	58,958	71,140	12,182	20.7
비 율	15.6	13.7	14.0	0.3	-
고정이하여신	40,443	38,901	44,801	5,900	15.2
비 율	10.9	9.0	8.8	△0.2	-

자료 : 금감원, "상호저축은행의 FY'07('07.7.1~'08.6.30) 영업실적",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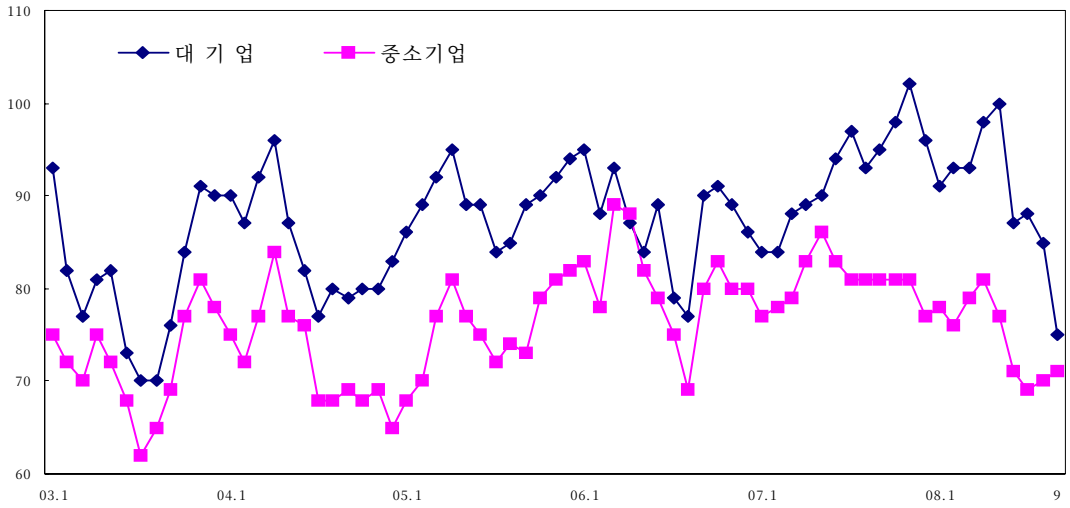
② 업황 및 자금조달 악화로 기업의 자금 수요 증대

-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의 업황실적이 하락함에 따라 자금조달 실적은 악화되고 있어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향후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대기업 제조업 업황실적 하락:** 대기업의 업황 실적은 2008년 5월 100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6월 87로 급감한 이후, 2008년 9월 현재 75까지 하락한 상황임
  - 매출실적 또한 5월 130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2008년 9월 103까지 하락
  - 내수판매실적은 매출실적보다 앞선 4월부터 악화되기 시작

- **중소 제조업 업황실적 둔화:** 2008년 2/4분기 중반부터 중소 제조업의 내수 판매 실적 및 매출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업황실적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
  -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업황실적은 2008년 1/4분기 반짝 호조를 보여 4월에는 81까지 올랐으나 이후 부진을 보이면서 6월부터는 70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음
  - 매출실적도 지난 4월 105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9월 현재 92로 하락
  - 내수판매실적도 지난 4월 98을 정점으로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9월 현재 87을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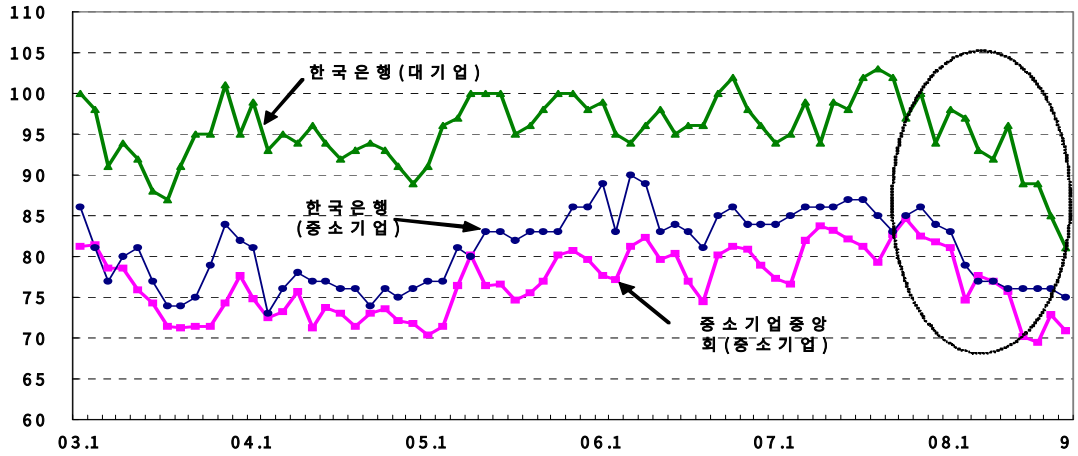
제조업 업황 실적 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 **자금조달 BSI 지속적 악화:** 기업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자금조달 사정 실적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 제조업 부문은 2008년 5월 96까지 회복되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2008년 9월 81까지 하락
  - 중소제조업 부문의 자금사정실적은 2007년 11월 86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며 2008년 9월에는 75까지 떨어졌음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의 자금조달사정실적도 비슷한 행보를 보여 2007년 10월 84.6을 기록한 이후 자금조달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2008년 6월부터 70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음

중소 제조업 부문의 자금조달사정 실적 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 **중소기업 대출 수요 증가 예상: 향후 중소기업들의 대출수요 압력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형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008년 4/4분기의 대출수요 지수는 3/4분기의 22보다 12나 높은 34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예상되고 있음
  - 중소기업들의 대출수요 압력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경기 및 소비 둔화에 따른 매출 부진과 부족한 운전자금 보전을 위한 대출수요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업내부자금 변동이 대출수요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여유자금 보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 대출수요지수 추이 및 전망

	2006				2007				200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1)
종합	15	16	12	18	11	2	4	13	6	13	11	20
중소기업	24	31	19	25	25	19	19	25	19	22	22	34
가계주택	6	0	-9	13	-9	-25	-22	-13	-9	-6	-13	-6
가계일반	9	9	6	6	-3	6	9	13	0	3	0	6
대 기 업	-3	6	0	6	3	-3	3	9	9	16	13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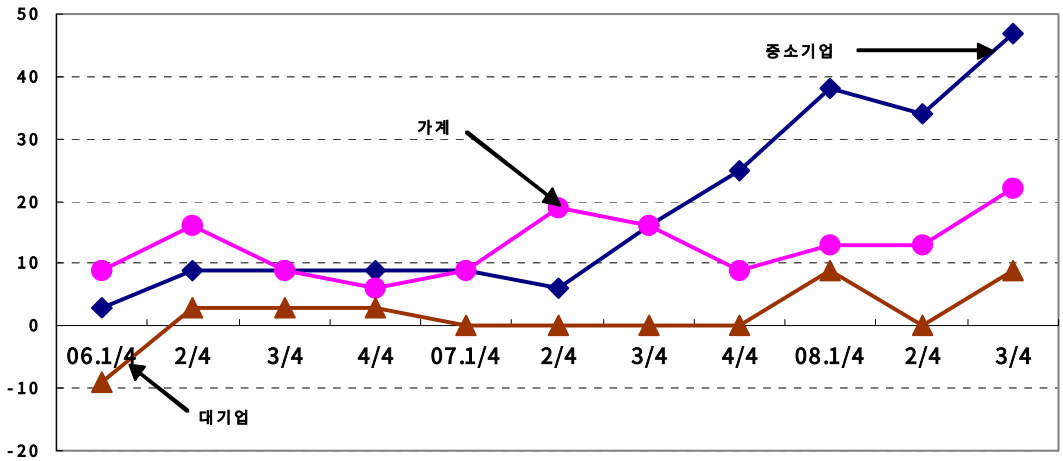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형태 서베이 결과”, 보도자료. 2008년 10월 6일.
주 : 1) 한국은행 전망치.

③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은행 대출 기피

- **국내 소비가 급감하면서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은행 대출이 경색되고 있음**

- **신용위험지수 급증:** 2008년 3/4분기부터 각 경제주체들의 신용위험 지수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이 대폭 커진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4/4분기부터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이 가계에 대한 신용위험을 추월하기 시작
  - 2008년 3/4분기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지수는 47로 지난 2007년 4/4분기에 비해 22나 높아졌음
  - 대기업의 2008년 3/4분기 신용지수는 9로 중소기업에 비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나 2006년 이후 1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한 것은 두 번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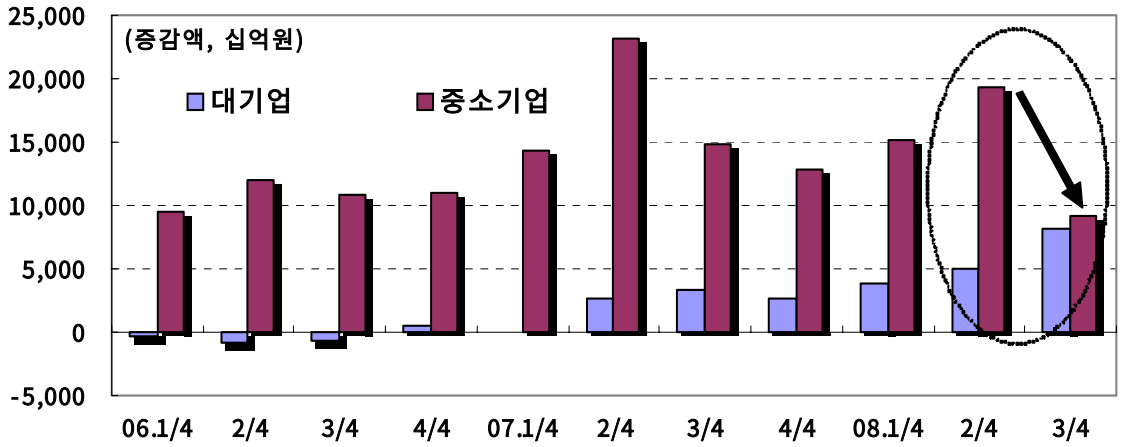
국내은행의 신용위험 지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형태서베이 결과”, 보도자료 참조.

-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 급감:** 중소기업 대출 증가는 1/4분기의 15.1조 원, 2/4분기의 19.2조 원에서 3/4분기에는 10조 원이나 감소한 9.2조 원에 그침
  - 특히, 지난 8월과 9월에는 국내금융시장의 신용위험 증가로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 규모가 각각 1.8조 원과 1.9조 원에 불과하였음
  - 한편, 대기업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시장 경색에 따른 예비적 자금 수요 증가 및 회사채 시장 위축에 따른 대체자금 조달원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임

은행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 추이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 참조.

④ 은행의 수익성 악화

- **예금은행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 50%에 달하고 있어 부동산 침체가 가시화될 경우, 예금은행이 부실화될 수 있음**

- **예금은행의 수익 악화:** 최근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예금은행의 고원가성 예금의 증가로 인해 예대금리차는 축소되고 순이자마진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등 예금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원화대출채권평균이자율에서 원화예수금평균이자율을 뺀 원화예대금리차가 2006년 1/4분기 3.69%p에서 2008년 2/4분기 현재 3.00%p로 축소
  - 높은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에도 불구, 예금은행의 수신 구조가 수시입출금식 저원가성 자금은 감소하고 고원가성 수신에 의존하면서 순이자마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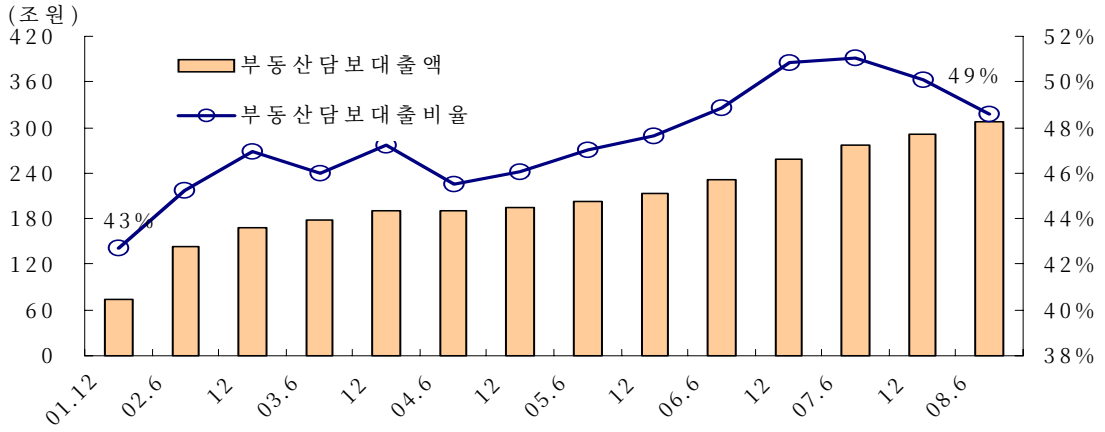
예금은행의 예대금리차 및 순이자마진

	2006				2007				200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원화예대금리차(%p)	3.69	3.50	3.46	3.43	3.32	3.30	3.25	3.25	3.11	3.00
명목순이자마진(%)	2.80	2.66	2.62	2.61	2.50	2.48	2.44	2.44	2.39	2.29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부동산담보대출비율 상승:** 더욱이 부동산담보대출비율이 2001년 12월말 이후 증가세에 놓여 있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경우, 대출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
  - 부동산담보대출액을 살펴보면, 2008년 6월말 현재 307조 원으로 2001년 12월말 75조 원에 비해 급등

부동산담보대출액 및 대출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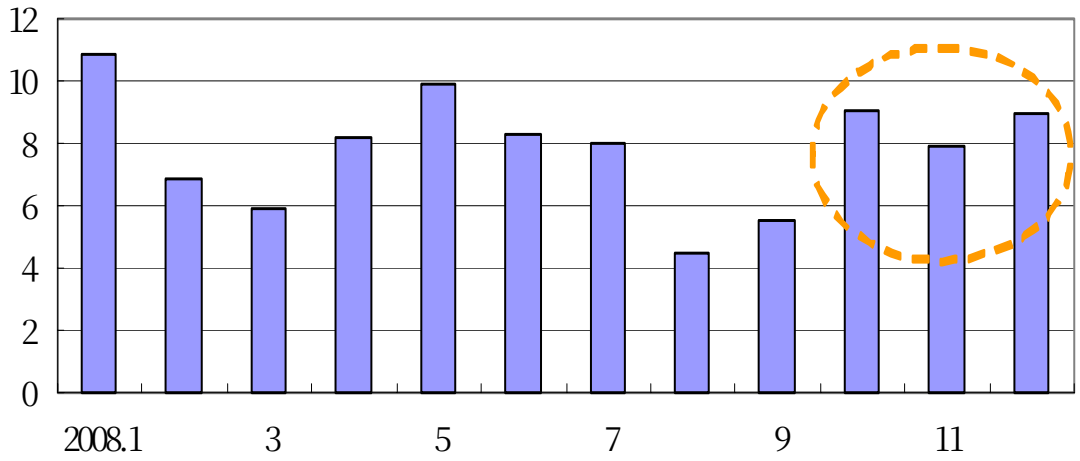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부동산담보대출비율이란, 예금은행기관(특수은행제외)의 담보별 원화대출총액 중 부동산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임.

⑤ 은행의 수신 구조 취약

- **은행채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은행채 발행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품 또는 단기성 상품 증가에 의해 은행의 수신 구조가 취약하므로 대출을 제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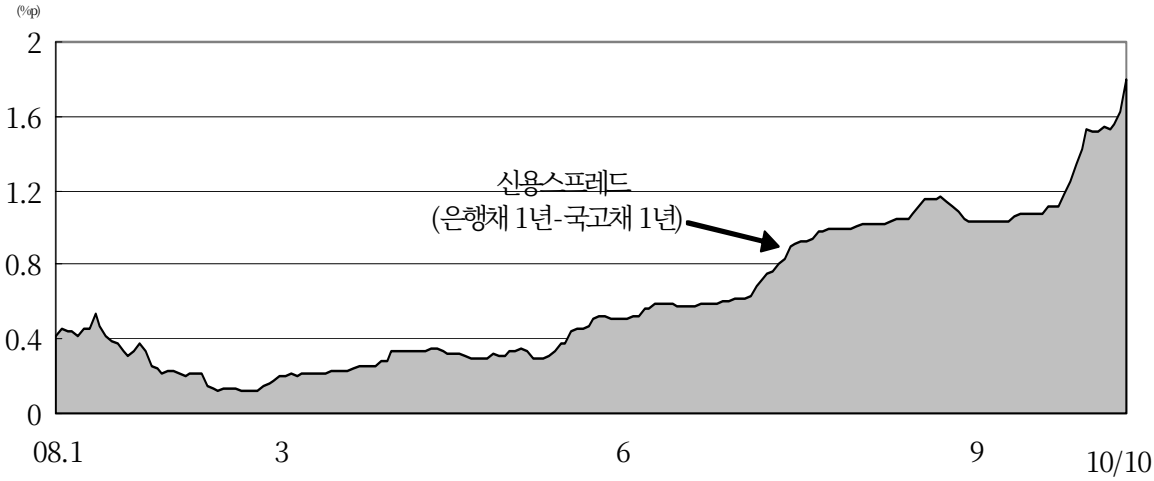
- **은행채 발행 부담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심화로 자금이 안전자산인 국고채로 집중되는 반면, 은행채 수요는 감소함으로써 은행채 금리가 상승함
  - 2008년 만기도래한 은행채 규모는 94조 원으로 2007년보다 20조 원 증가하여 은행채 발행의 필요성 증대
  - 이러한 은행의 자금 수요에도 불구, 글로벌 금융 경색이 은행채 금리를 급등시킴으로써 2008년 초 0.42%p 차이에 불과한 은행채와 국고채와의 차이가 10월 10일 현재 1.8%p까지 차이가 벌어짐

은행채 만기 도래 규모 추이



자료 : 한국증권업협회.

국고채와 은행채 스프레드 추이



자료 : 한국증권업협회.

- **은행의 저원가성 수신 감소:** 최근 은행의 수신 구조는 고금리 정기예금과 은행채 발행에 의존하는 취약성을 나타냄
  - 은행 수신은 2008년에 크게 개선되었으나, 수시입출금과 같은 저원가성 수신은 2007년말 232.1조원에서 2008년 9월말 기준 233조 4,000억 원으로 2007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1조 원 증가에 그침
  - 은행채가 2008년 9월에 3조 원 증가한 점은 은행의 대출 수요로 인한 자금 조달이 여전히 부족함을 의미

- **대기성 부동자금 확대:** 또한 단기 상품인 CD(양도성 예금증서)와 MMF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며 대기성 부동자금도 확대되고 있음
  · CD는 2008년 1~8월까지 전년말대비 15.8조 원이 증가한 111.0조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8년 MMF 자금 유입은 전년말대비 15.6조 원이나 증가

은행과 자산운용사 수신변동 추이(말잔기준)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구 분	2006년 말		2007년 말		2008.1－9	
		증감액		증감액		전년말대비 증감액
은행 수신	759.8	73.1	810.8	51.0	887.2	76.4
- 수시입출식1)	239.0	15.0	232.1	-6.9	233.4	1.4
- 정기예금	262.8	16.5	274.6	11.8	316.6	41.9
- CD	67.0	11.4	95.2	28.2	111.0	15.8
- 은행채	108.2	31.6	137.4	29.2	157.7	20.2
자산운용사 수신	234.7	30.3	296.5	61.8	341.4	45.0
- MMF	57.2	-7.7	46.8	-10.4	62.3	15.6
- 주식형	46.4	20.3	116.3	69.9	142.9	26.6

자료 : 한국은행, 월중 금융시장 동향.
주 : 1) 요구불예금 포함.

3. 향후 과제

○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 부족이 원화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첫째, 금융기관의 기업과 가계에 대한 신용 공급 노력을 극대화하여 금융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
  -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해야 할 것임
  - 또한 우량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해서는 운용자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출 연장을 적극 고려해야 함

- **둘째, 금융기관이 대출을 위한 다양한 자금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은행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함**
  - 현재와 같이 CD나 은행채 등의 발행 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다양한 예금 신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셋째, 정부는 은행들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금융정책을 유연하게 수립해야 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임**
  - 은행의 지준율과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은행들의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지원해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한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해 정책지원금을 확대해야 할 것임
  - 또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금융상품 개발에 있어 세제상 등의 지원 강화가 필요함

- **넷째, 기업들은 국내 자금시장의 유동성 악화에 대비하여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될 경우, 은행들이 대출 관리를 강화할 것이므로 투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이에 맞도록 자금 조달 계획 수립이 필요

현석원 연구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메 모

현대증권 現代經濟硏究院
금융빅뱅 인사이트 | 08-18(통권27호)